

혁신도시 출퇴근길 뱅 뚫린다

신규 진입도로 입체교차로 조성...2017년말 완공

시행 3사 사업비 188억 분담 나주시 이관받아 추진 추가 비용 91억 확보 나서

출·퇴근시간 '지옥의 도로'로 악명 높은 나주 빗가람 혁신도시의 진·출입로(광주 일부 9월 10일자 11면)가 입체화 교차로 조성으로 이르면 오는 2017년 말부터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가 자금난 등을 핑계로 입체화교차로 조성을 꺼려온 LH공사 등 혁신도시 시행 3사로부터 일부 사업비를 받아 직접 조성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직접 조성으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 확보를 위해 국토부 등을 상대로 예산투쟁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 기관 간 예산 쟁탈전 거듭할 경우 빗가람 혁신도시 입주민과 나주시민의 불편은 물론 투자자의 투자포기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광주에서 국도 1호선을 타고 혁신도시로 진입하는 차들이 남평 병목구간부터 밀리는 등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도 1호선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북측연결도로(나주 산포 매성리 일원)에 입체화 교차로를 신설해야 하지만, 혁신도시 시행 3사에서 예산



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평면교차로 설치를 고집해 왔다. 애초 이 구간은 전남도에서 건설하기로 돼 있었지만 혁신도시 3사로 이관되면서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순 평면교차로로 할 경우 980m 4차선 진입로 공사비로 188억원이 들어가지만 입체화 교차로로 전환하면 91억원이 추가된 279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나주시는 단순 평면 교차로 조성으로는 현 차량 정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입체화 교차로 전환을 요구해 왔으며, 결국 시행 3사와 협의과정에서 차선책으로 사업비 188억원 이관받아 직접 사업을 추

진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나주시의 이 같은 요구안을 시행 3사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나주시와 시행 3사는 조만간 지자체로의 사업비 이관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대비와 감리비, 현장 민원발생에 따른 추가사업비 투입 문제 등을 포함한 최종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내에 전남도 설계기준(품) 적용 재설계, 설계명세 적정성 검토 등 설계검증을 거친 뒤 12월에는 사업비 인계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지역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 1월 보상계획 공고에 이어 감정평가 등 평면도지매수절차와 함께 착공해 오는 2017년 말 완공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입체화 교차로 전환에 따른 추가 사업비 마련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토부 등을 상대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빗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만큼 진입로 문제도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칠 계획"이라며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추가사업비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2015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을 하루 앞둔 14일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박람회장 힐링체험관에서 홍보요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다음달 1일까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 오늘 개막...18일간 대장정

28개국 489개 기업·기관 참가...6차산업 농업 경진대회 동물농장·공연·수출상담회...막걸리데이·분재대전도

2015국제농업박람회가 15일 오전 11시 나주 산포면 소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막, 18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국제농업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28개 나라 489개 기업·기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농업의 과거·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를 내다보게 될 이번 박람회는 '창조 농업의 장', '힐링 농업의 장', '체험학습의 장', '교류홍보의 장' 등으로 나뉘어 전시관과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생명농업관, 농업환경변화관, 농업미래관, 성공농업인관으로 구성된 '창조농업의 장'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 현황과 창조농업 사례를 소개하고, 농업의 미래기치를 보여주는 360도 서클영상, '생명의 씨앗' 3D영상이 상영된다. '힐링체험의 장'은 치유적 기능과 건강한 삶의 기쁨이 되는 산업으로서 농업을 알리기 위해 도시농업, 토마토 정원, 화분 정원, 플라워 패션쇼, 찻다래 싹터 등으로 조성

메시지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박람회조직위원장인 이낙연 도지사를 비롯해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장, 운영위원장 주시경,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다. 이날 행사는 이 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여인홍 차관, 명현관 의장의 축사의 축사에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보내온 축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고 밭으며, 고구마, 땅콩, 단감 등 농산물을 직접 수확할 수 있다. 산양, 염소, 사슴 등 20여 동물과 교감하는 '동물농장'도 운영된다. 국제비즈니스데이(15~19일), 수출상담회 등이 열리는 '교류홍보의 장'은 국내 농업기술과 건강한 농산물, 세계 각국의 첨단농업 기술을 엿볼 수 있다.

15~17일에는 한국전력 협찬으로 '서울팝스 오케스트라 재즈앙상블', 16일 광주시립합창단 공연, 23일 도립국악단, 오케스트라단, 합창단, 무용단 등 공연, 25일 풍물패 '노름마치' 국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이 외에도 16일 농촌진흥청 주최 '6차산업 가공식품 경진대회', 27일 '농촌여성문화동아리 활동 발표회', 28일 '농촌지도자대회', 2015경관디자인 옥외광고물 통합전시회, 막걸리 데이, 10대 브랜드 쌀 품평회, 15~31일 전라남도 분재대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같이 열린다. /최현배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작은 영화관 1호 '정남진 시네마' 19일 개관

60석·39석 2개 상영관 사도·성난 변호사 첫 선

최신 개봉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전남도 1호 작은 영화관인 장흥 '정남진시네마'가 오는 19일 공식 개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 장흥군이 공동 설립한 '정남진시네마'는 첫 상영작으로 '사도'와 '성난 변호사' 등 2편을 상영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14일 "장흥국민체육센터 4층

에 자리를 잡은 전남도 1호 작은 영화관인 '정남진시네마'가 오는 19일 개관식을 갖고 20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관식 기념으로 '사도'와 '성난 변호사' 등 국내영화 두 편이 상영된다.

작은 영화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가 농어촌 지역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영화관이 없는 자치단체에 영화관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에서 장흥군이 첫 선정 됐다. 총 사업비 13억원이 투입된 '정남진시네마'는 2개의 상영관에 각각 60석과 39석씩 총 99석의 관람석 그리고 매점 등을 갖추고 있다. 영화관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1일 5회 상영한다.

관람료는 대도시 영화관의 60% 수준인 일반영화 5000원, 3D영화 8000원이다. 정남진시네마는 최신영화 상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은영화관운영 전문업체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과 위탁협약으로 운영된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재본부장

완도수목원, 참바늘버섯 항천식효과 밝혀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이 일본보다 앞선 기술로 참바늘버섯(사진) 대량 인공 재배에 성공한데 이어 세계 최초로 항천식효과를 밝혀내 관련 기술 산업재산권을 확보했다.

14일 완도수목원에 따르면 산림청 연구개발(R&D) 임업기술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참바늘버섯 항천식효과 연구사업을 통해 참바늘버섯 추출물에 항천식효과

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완도수목원 오득실 박사팀과 동산대 한약재산업학과 박대훈 교수팀은 천식 동물모델 쥐 실험을 통해 기존 치료물질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비교한 결과 치료제 이상의 우수한 효과를 확인했다.

현재 사용되는 천식 치료제는 주로 부신피질호르몬으로 어린이의 성장 저하, 배내장, 녹내장, 고혈압, 고지혈증, 근육통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천연물로부터 천식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윤현석기자 chadol@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부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6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년래 8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축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